

산자부, “ 구조조정 문제 노사정위나 가보라”

노조 구조조정사업장 1박 2일 공동투쟁 2일 차.. “지금 밀리면 모든 노동자 구조조정 시작”

구조조정 중단과 충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1박 2일 공동투쟁 중인 금속노조 구조조정 사업장 조합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 논리를 앞세워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경남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 앞에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철회, 중형조선 살리기, 한국지엠 충고용 보장, 구조조정 저지, 산자부 장관 면담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산자부가 ‘자본의 이익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생선현장을 떠나 거리에서 싸우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라며 “지난 촛불 항쟁 기운



데 노동자들이 한가운데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괘시하고 있다”리면서 개탄했다.

하태경 금호타이어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저지 투쟁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리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박경태 성동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채권단은 2007년 성동조선에 선박 수주물량 FC발급을 빌미로 키코(KIKO)*를 강매했다. 이 키코로 인해 1조 4천억 원 손실을 보면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꼬집었다.

진한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도 투쟁 발언에서 “이제 자본의 이익이 중요한지 노동자의 삶이 중요한지 물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가 밀리면 모든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리며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과 지회 대표자들은 산자부 장관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산자부 장관은 자리를 비웠고 담당 국장이 나와 노조 대표단을 만났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와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며 시급히 노정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산자부 담당 국장은 그저 “노사정위에서 다루자”라고 답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산자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금속노조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레이테크 노동자, 인격모독·협박·폭행 등 유린당해

임태수 사장 여성 조합원 폭행... “정리하고 위해 폭행, 거짓 고발 일삼는 사업주 처벌해야”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3월 21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여성노동자 폭행 임태수 사장 규탄과 구속 처벌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레이테크분회는 3월 21일 아침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사장이 조합원들에게 저지른 폭행을 증언했다. 조합원들은 쌍

방 폭행이라는 임태수 사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폭행과 무고죄로 임 사장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태수는 3월 21일 아침 9시 5분쯤 광화문 사무실에서 업무 대기 중인 레이테크분회 조합원들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폭행을 저질렀다. 한 명이 밟히고, 두 명이 임태수를 제지하던 중 허리와

팔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임태수는 조합원들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종로경찰서에 찾아가 레이테크분회 조합원들을 고발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같은 날 오후 여성가족부를 찾아 이번 폭행 사건을 알리고, 여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현대차는 노조파괴 범죄를 국민에게 자백하라”

현대차 지배개입 노조파괴 규탄 결의대회...검찰 과거사위 진상규명, 노조파괴 자금 세무조사 촉구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가 한광호 열사 2주기 추모 주간에 맞아 현대자동차의 노조 파괴 지배개입 처벌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3월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 현대차 지배개입 규탄, 노조파괴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19일 같은 곳에서 한광호 열사 2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 지회장이 조합원들을 대표해 현대차를 향한 항의서한을 발표했다. 도성대 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배개입을

위해 저지른 죄를 국민 앞에서 자백하라”라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도성대 지회장은 “현대차는 한국의 노사관계 판도를 바꾸고, 단가 후려치기 등 부품사 관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조파괴를 기획했다”라고 지적했다. 도 지회장은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짚값을 받겠다고 할 때까지 양재동에서 투쟁한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차는 뭐가 두려운지 1년 넘게 그룹 이름을 새긴 정문 상징석을 천막으로 덮어냈다. 현대차는 뒤에 숨어 부품사를 조정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벌을 받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훈 지회장은 “검찰은 2013년 1월, 3월, 6월 세 차례에 걸친 노동부의 유시영, 이기봉 등 구속 수사 의뢰를 단칼에 무시했다”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현대차의 유성기업 등 부품사 노조파괴 개입과 검찰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 직무유기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정훈 지회장은 “노조파괴 들어간 수백억 원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밝히는 투쟁을 하겠다”라며 “10년 투쟁이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믿고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문재인 정권, 헌법 기본권 포기하며 해외매각 추진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MOU에 파업권 포기 합의...은폐, 법정관리 협박, 매각 무쟁의 동의서 강요

문재인 정권의 국책 산업은행이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하며 중국 자본에 금호타이어를 팔아넘기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가 입수한 ‘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 체결 세부사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각 선행 조건으로 ‘파업 미존재 -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회사

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더블스타에 합의해줬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MOU 체결을 하면서 헌법상 노동 3권의 하나이며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매각 선행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7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

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책 산업은행이 이를 앞장서 위배한 것이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계속 해외매각을 추진하면 청산해야 할 노동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정감사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